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3. 8. 21.(월)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상임위원 (2인)

□ 불참위원 : 김 현 상임위원 (1인)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김 현 위원님이 불참을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실상 제5기 방통위의 마지막 공개회의인데 이렇게 불쌍사나운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토론과 합의에 있고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서로 간의 의견을 최선은 수렴해서 합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절차에 따라 자신의 견해 또는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이 부여한 의결권을 행사해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조직의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6차, 제27차, 제28차, 제29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관한 건'과 <의결안건 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보고안건> 1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이의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럼,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고안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안건 가>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 사유입니다. 보고 사유는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2> 추진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 평가 개요입니다. 본 평가는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 2022년 방송실적분이 10개월(300일)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하되, 허가·승인사업자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채널이 회계분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회방송과 같은 공공채널, 아리랑TV 같은 공적재원으로 운영되는 등록채널, CNN 같은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대상 구분은 방송사업자의 규모,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방송채널을 '가' 그룹과 '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 내에서 공급분야 특성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평가대상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 그룹은 방송법상 재송신·재허가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이며,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PP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룹 내에서 PP채널이 기획, 제작, 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장르특성에 따라 3개의 공급분야로 구분하는데 공급분야 구분 특성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되며, 14개 세부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가' 그룹과 '나' 그룹 내 각각 3개의 공급분야 별로 매우우수, 우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되며, 해당 등급별 채널 분포 비율은 매우우수(15%), 우수(25%), 보통(35%), 미흡(20%), 매우미흡(5%)입니다. 다음은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으로 평가그룹은 '가' 그룹과 '나' 그룹 내 공급분야별 매우우수,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채널을 공개하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외부기관에서 활용되어, 외부기관 활용사례로는 과기정통부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유료방송사와 PP 채널 간 계약을 위한 PP평가 항목에 동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PP평가 기준의 적용은 '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활용사례는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21년도부터 '매우우수'등급 획득 채널에 '우수채널 선정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 전년대비 변경 사항으로는 콘텐츠 제작비 평가에 있어, 콘텐츠에 투자된 제작비에 사업자 규모를 반영하여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작비를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 이후 평가대상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평가결과를 산출한 후 제작역량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통위 전체에 보고드리고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역량평가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이번 경영계획 수립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의 목적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창작물에 대한 제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지표 현실화와 함께 우수PP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평가의 개선과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졌습시다만 말씀드린 혜택 부여 방안 등의 추가적인 발걸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6기 방통위에서도 사무처와 함께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 이후 사무처에서는 평가 일정대로 원만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평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방송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작 역량 평가결과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자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상임위원

-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09분 】

6. 의결사항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관한 건 (2023-30-092) (비공개)

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23-30-093) (비공개)

【 10시 38분 】

8. 기 타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설령 개인적인 감정 선을 건드린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능히 포용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는 그런 원칙을 전제로 늘 상대방의 이야

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 의견충돌도 있었고 감정선을 건드린 측면도 있었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의결 사안도 의견충돌을 하더라도 끝내고 나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것이지 인간을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입장을 저는 서로 간에 나누고 흡족하지는 않아도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고 끝내 회의에 불참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간의 crippled된, 불구가 된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린다는 것이 무척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깝게는 사무처 직원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적으로 여든 야든 상임위원들을 보좌해 왔는데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 못 났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유감입니다. 여하튼 지난 3년 동안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였고, 제가 떠나더라도 하루속히 방통위가 정상화되어서 지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율주체로서 역할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아마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말씀드립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상임위원, 부위원장, 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 내부 안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내시고, 또 심의·의결에 심혈을 기울여서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건 심의도 하시고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퇴임식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원들과 또 여러 사무처 직원들을 대신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3분 폐회 】